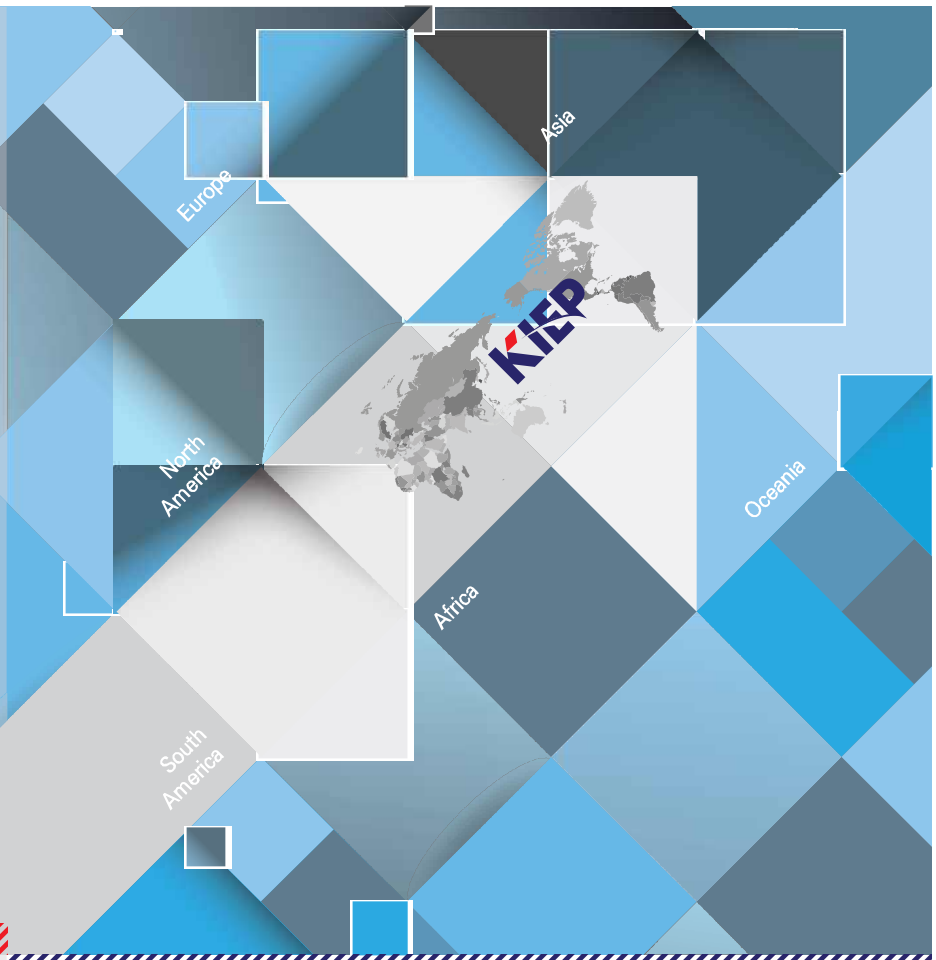



KIEP 기초자료
19-01

2019년 3월 25일

# 시리아 내전의 경제·사회적 영향과 향후 전망

장윤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yhjang@kiep.go.kr, 044-414-1330)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시리아 내전의 경제·사회적 영향과 향후 전망


## 요약

▶ 시리아 내전은 2011년 3월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 간 대립으로 촉발된 유혈사태로 시작되었으며 국제적 개입이 이어지면서 약 8년간 지속됨.

-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 간 대립 속에 러시아와 이란이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고, 미국, EU, 아랍연맹, 터키 등이 반군을 지지하면서 국제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됨.

▶ 2018년 12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ISIL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시리아 내 미군 철수 계획을 밝혔으나, 동맹국의 반발 속에 소규모 병력을 남기는 것으로 입장을 전환함.

- 시리아 내 병력 2,000명을 철수시킨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프랑스, 영국 등 동맹국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미국 내에서도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킴.
- 이에 2019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철군 대신 약 400명의 병력을 시리아에 남겨두겠다는 뜻을 밝힘.

▶ 내전이 시작된 이후 시리아 경제성장률은 크게 하락하였으며 주요 산업의 생산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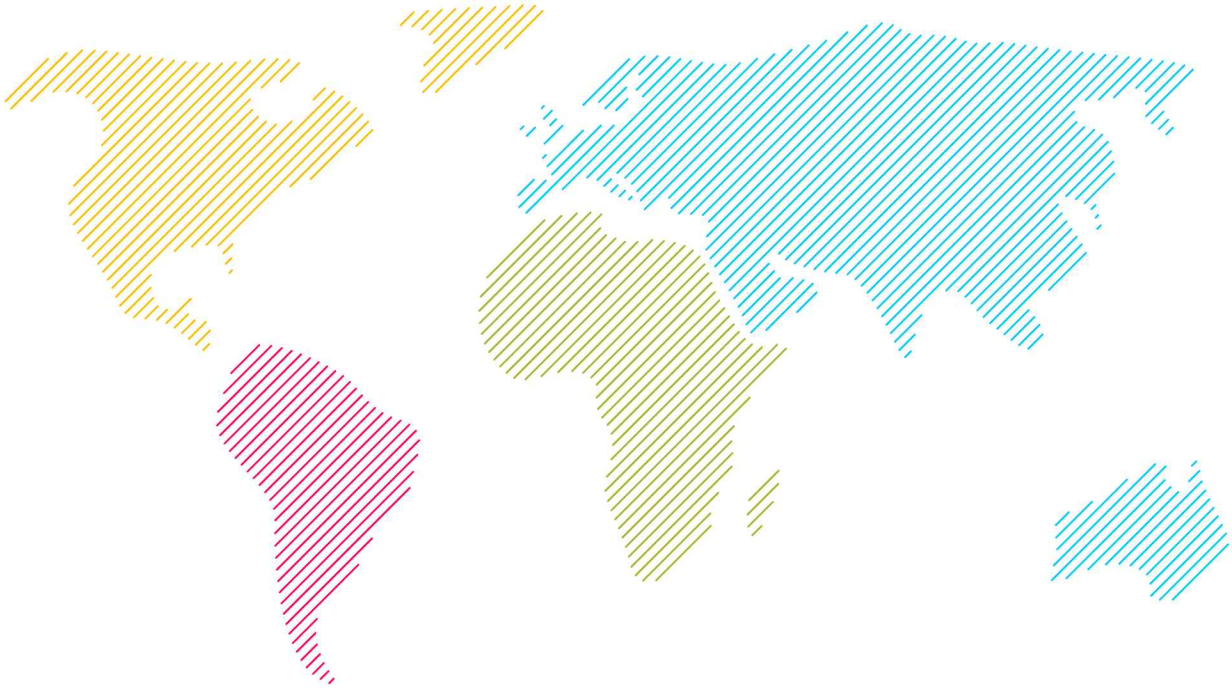
- 시리아 경제성장률은 내전 초반인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30.8%, -36.5%를 기록하며 전례 없는 수준으로 하락함.
- 시리아 내전은 농업, 광업 등 주요 산업은 물론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석유 및 가스 산업은 내전 이전까지 시리아의 수출과 재정수입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내전의 영향 및 미국·유럽 등 서방의 제재로 크게 위축됨.

▶ 시리아 내전은 시리아 국내뿐 아니라 주변국 및 유럽에도 경제·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

- 시리아의 인접국인 레바논과 요르단은 급격한 난민 유입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시리아 내 혼란은 ISIL의 확산을 야기하였으며, 시리아 난민이 대규모로 유입된 주변국에서 시리아 난민과 지역 사회간 마찰이 빚어지면서 불안정성이 가중됨.
- UNHCR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시리아 국내실향민 수는 620만 명에 달하였으며 주변국을 비롯해 유럽으로 이주한 시리아 인구도 6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됨.

▶ 시리아는 정부군이 영토 대부분을 수복하고 ISIL 세력이 크게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안정화에 이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철군 계획 일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리아 북동부를 둘러싼 안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ISIL이 재부상할 가능성도 있음.
- 시리아 내 안정화가 지연되면서 난민 문제도 단기간 내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리아 재건을 위한 국제적 지원이 필요함.



# 차 례

1. 개요

2. 최근 시리아 정세 및 경제 동향
   가. 정세 동향
   나. 경제 동향

3. 시리아 내전의 경제·사회적 영향
   가. 난민 유입
   나. 주변국 경제 악화
   다. 사회 불안 확대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 1. 개요

■ 시리아 내전은 2011년 3월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 간 대립으로 촉발된 유혈사태로 시작되었으며 국제적 개입이 이어지면서 약 8년간 지속됨.

- 시리아 남부 도시 다라(Daraa)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정부의 시위 진압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곧 주요 도시인 홈스(Homs), 하마(Hama), 알레포(Aleppo), 다마스쿠스(Damascus)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사태 발발의 요인이 됨.[1)]
-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 간 대립 속에 러시아와 이란이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 정부를 지원하고, 아사드 정부의 유혈진압에 대응하여 미국, EU, 아랍연맹, 터키 등이 반군을 지지하면서 국제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됨.[2)]
  - ○ 러시아는 시리아의 오랜 동맹국으로 지중해에 인접한 시리아의 타르투스(Tartus)에 해군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란은 시리아 내에서 헤즈볼라(Hezbollah)를 지원하면서 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시아파 벨트를 공고히 하려 함.
  - ○ 미국과 EU는 시리아에 대한 제재조치를 실시한 한편, 반정부군에 비살상(non-lethal) 무기 등을 지원함.

■ 시리아 내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 중 하나로 평가되며 인명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시리아인권관측소(Syrian Observatory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2018년 12월까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 수는 5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됨.[3)]
  - ○ 이 중 사망자 수는 36만 8,000명으로 집계되며 실종 및 사망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규모는 19만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시리아 인권 감시단체인 위반기록센터(VDC)는 민간인 공격과 같은 국제 인도주의법 및 인권법 위반 사례를 조사하였는데, 2018년 12월 기준 전투 관련 사망자 수가 19만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민간인 수가 12만 3,000명으로 집계됨.
- 또한 시리아 인구의 83%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33%가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4)]

■ 아사드 정부군이 시리아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통제권을 회복하면서 정부군과 반군간의 교전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으나 향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음(그림 1 참고).

- 반군, 터키군, 쿠르드 세력이 통제하고 있는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미국의 철군 발표 이후 긴장 상태가 고조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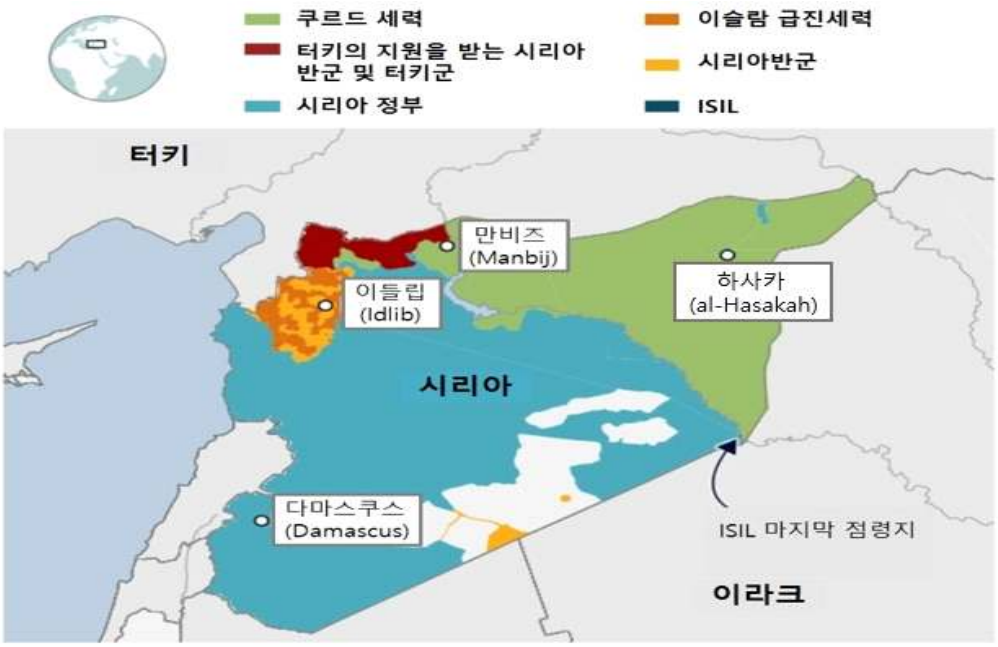
1) 시리아 내전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권형, 박재은(2012), 「시리아 유혈사태의 장기화: 배경 및 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제06-2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2) 시리아 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박재은(2014), 「시리아 분쟁 3년: 현황과 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제08-05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3) BBC(2019. 2. 25), "Why is there a war in Syria?"
4) 2019 Syrian Arab Republic Humanitarian Needs Overview, Key Figures, Humanitarian Needs.

운데 안전지대(safe zone) 구축과 관련하여 미국, 터키, 러시아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ISIL)의 영향이 크게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시리아 북부 도시 만비즈(Manbij)에서 ISIL에 의해 미국인 4명을 포함해 최소 10명이 사망하는 테러 공격이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안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교전 규모는 감소하였지만 전쟁 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가 지속되면서 시리아 난민의 귀환이 지연되고 있음.
- 본 자료에서는 최근 시리아 정세 및 경제 동향,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그림 1. 시리아 내 세력 분포(2019년 2월 기준)**




자료: Conflict Monitor by IHS Markit, 재인용: BBC(2019. 2. 25), "Why is there a war in Syria?"

# 2. 최근 시리아 정세 및 경제 동향

## 가. 정세 동향

■ 2015년 러시아가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공습을 시작하면서 정부군이 우세를 차지함.

- 2015년 상반기 아사드 정부군이 반군과의 교전에서 잇달아 패하며 북부 이들립(Idlib) 지역의 통제권을 잃은 가운데 동부 지역에서는 ISIL의 영향력이 커짐.
- 2015년 9월 말 러시아는 시리아 내 ISIL을 상대로 공습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아사드 정부의 군사 지원 요청에 따

른 것이라고 밝힘.

○ 러시아는 공습 대상이 테러리스트에 국한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주요 반군 지역과 민간인 지역을 수차례 공격한 것으로 보도됨.[5)]

○ 2016년 말과 2018년 초에 각각 동부 알레포 및 동부 구타(Ghouta) 반군 근거지에서 벌어진 교전에서 러시아군의 공습은 정부군이 승기를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 반군 세력은 주요 거점을 잃고 근거지가 북부 지역으로 축소되었으며, 2017~18년 미국과 요르단, 걸프 국가들로부터의 지원이 끊기면서 반군의 정권 교체 목표는 사실상 실패함.

○ 반군 세력이 분열되고 아사드 정부가 세력을 회복함에 따라 시리아 내전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반군 지지 세력의 지원이 감소함.

○ 2017년 미국은 시리아 반군을 훈련시키고 무기 및 금전을 지원한 CIA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밝힘.

■ **반군의 세력 약화 이후 시리아 내전은 아사드 정부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국제 세력들이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입하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됨.**

- 아사드 정부를 지지해 온 러시아와 이란이 시리아 내 주도 세력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시리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음.

○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을 통해 아사드 정부의 권력 유지에 기여하면서 시리아 내 해상기지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중동 영향력을 확대하고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이란도 중동 지역 내 주요 우방인 시리아 정부를 지키고, 향후 혁명수비대(IRGC)를 시리아에 계속 주둔시키면서 이라크, 레바논 등 인접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함.[6)]

- 미국의 동맹인 터키는 반군을 지지해 왔으나 상황 변화에 따라 러시아, 이란과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터키와 국경이 맞닿은 시리아 북서부 지역을 장악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시리아 쿠르드 세력을 견제하고 있음.

○ 미국은 ISIL 격퇴를 위해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YPG)를 지원하고 있으나 터키는 YPG를 자국 내에서 테러 단체로 규정한 쿠르드노동자당(PKK)과 연계된 조직으로 보고 있음.

○ 터키는 미국 주도 연합군에 가담했으나 연합군 내 주요 병력인 YPG를 수차례 공격한 것으로 알려짐.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2월 ISIL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시리아 내 미군 철수 계획을 밝혔으나, 동맹국의 반발 속에 소규모 병력을 남기는 것으로 입장을 전환함.**

- 시리아 내 병력 2,000명을 철수시킨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프랑스, 영국 등 동맹국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미국 내에서도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킴.

○ 프랑스와 영국은 트럼프의 ISIL 패배 선언을 부정하면서 미군의 철수로 인한 안보 불안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임.

○ 친트럼프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공화당 상원위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 결정이 “국가 안보에 재앙”

5) BBC(2015. 12. 23), “Syria conflict: Russian air strikes 'killed 200 civilians'.”
6) Carey *et al.*(2019. 1. 15), “Who’s Still Fighting Who in Syria’s Eight-Year War,” Bloomberg.

이며 "미국의 명예에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비판하였으며, 짐 매티스(Jim Mattis) 국방장관은 시리아 철군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이며 전격 사퇴함.[7)]

○ 또한 미국의 철군은 시리아 내에서 미국과 함께 ISIL 격퇴전을 벌여온 쿠르드·아랍연합인 시리아민주군(SDF)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SDF를 터키의 공격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에 2019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철군 대신 약 400명의 병력을 시리아에 남겨두겠다는 뜻을 밝힘.[8)]

○ 400명의 병력 중 200명은 시리아 북동부에서 안전지대를 유지하는 다국적 감시군의 일부가 될 것이며 나머지 200명은 시리아 남부 국경 탄프(at-Tanf) 기지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군 철수 계획은 4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나 이는 다국적 감시군이 얼마나 신속하게 구성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

## 나. 경제 동향

■ 시리아 내전은 물적자본 및 인적자본 피해, 인프라 파괴 등 대규모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내전으로 인한 시리아의 경제적 손실은 2,547억 달러로, 2010년 실질 GDP의 468%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9)]
- 주요 산업지대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제조업체들은 시리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터키, 이집트, 요르단 등 국외로 생산기반을 옮김.
- 안보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투자, 교역 규모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시리아의 총수출 규모는 2011년 79억 달러에서 2015년 6억 3,000만 달러로 약 92% 감소하였으며, 수입 규모는 같은 기간 173억 5,000만 달러에서 46억 5,000만 달러로 축소됨.[10)]

■ 내전이 시작된 이후 주요 산업의 생산도 급감하면서 시리아 경제성장률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내전 이전인 2010년 시리아 경제성장률은 3.4%로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내전이 지속되며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2016년에는 -3.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표 1 참고).

○ 시리아 경제성장률은 내전 초반인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30.8%, -36.5%를 기록하며 전례 없는 수준으로 하락함.[11)]

- 시리아 내전은 농업, 광업 등 주요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남.

○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GDP 감소 중 도소매업이 23.2%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광업은 15.2%, 농업은 11.6%를 차지함.[12)]

7) Sullivan, Kate(2018. 12. 20), "Graham: Trump's Syria withdrawal a 'stain on the honor of the United States'," CNN.
8) Diamond and Browne(2019. 2. 23), "Trump agrees to keep about 400 US troops in Syria, official says," CNN.
9) Syrian Center for Policy Research(2016), p. 6.
10) World Bank(2017), p. 61.
11) Syrian Center for Policy Research(2015), p. 14; Syrian Center for Policy Research(2016), p.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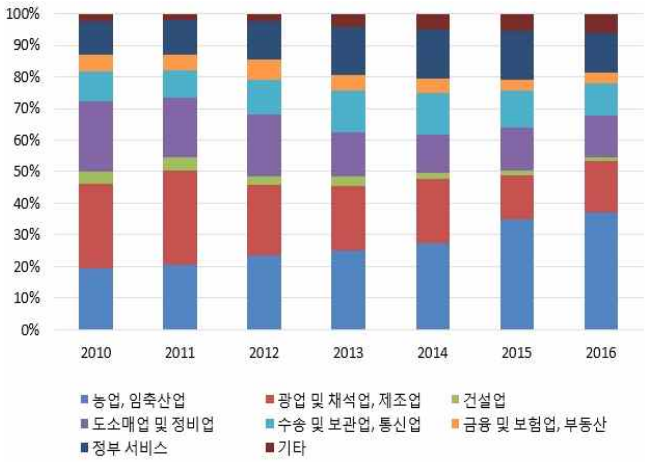
○ 2012년부터 원유 생산 규모가 급감하면서 GDP 대비 광업의 비중은 2010년 26.8%에서 2016년 16.4%로 감소하였으며, 도소매업은 2010년 22.5%에서 2016년 13.3%로 감소한 가운데 농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 19.4%에서 37.0%로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비중이 커짐(그림 2 참고).

**표 1. 시리아 주요경제지표**

| | 2005 | 2010 | 2016 |
|---|---|---|---|
| 명목 GDP(백만 달러) | 28,397 | 60,465 | 22,163 |
| 실질 GDP 증가율(%) | 6.2 | 3.4 | -3.4 |
| 1인당 명목 GDP(달러) | 1,552 | 2,877 | 1,203 |
| CPI(2010=100) | - | 100 | 663 |
| 수출(백만 달러) | 6,450 | 11,353 | 949 |
| 수입(백만 달러) | 7,898 | 17,562 | 1,773 |

주: 수출과 수입은 2017년 기준 추정치임.
자료: UNdata.

**그림 2. GDP 구성 추이**




주: 2013년부터 추정치임.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 **시리아는 다른 중동 국가와 달리 농업이 주요 산업 중 하나로, 내전 기간에 경작지 및 관개 수로의 파괴, 농민의 이주, 농기자재 부족 등의 요인으로 생산성이 악화됨.**[13)]

- 시리아의 주요 곡물 생산지는 대부분 정부가 통제력을 잃었던 북부 지역인 하사카(al-Hasakah), 락까(ar-Raqqa), 알레포 등임.

○ 생산 감소와 함께 농산물의 유통도 어려워지면서 농업 부문 생산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14)]

- 2015년 양호한 기후 조건에 힘입어 생산이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2017/18년은 기후가 악화되며 생산 규모가 다시 감소함.

○ 곡물 생산량은 2011년 482만 9,000톤에서 2014년 269만 7,000톤까지 감소하였다가 2015년에 일시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7/18년 주요 곡물인 밀과 보리의 생산량이 각각 120만 톤, 39만 톤으로 크게 감소하며 곡물 생산량이 급감한 것으로 파악됨(그림 3 참고).[15)]

○ 곡물 생산 감소로 식량 부족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2018년 기준 시리아 내 550만 명이 식량 불안정(food insecurity)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함.[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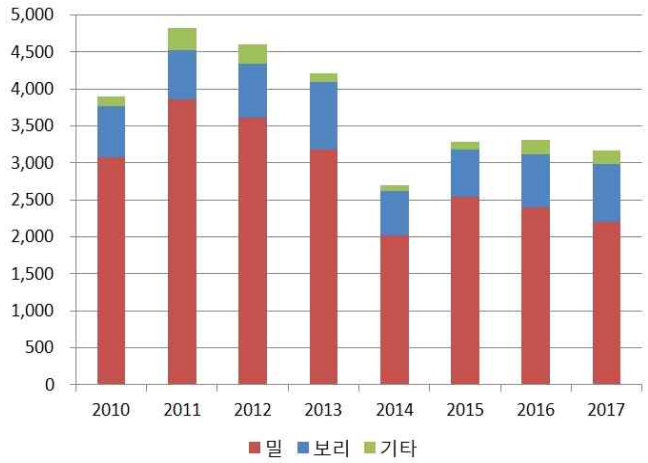
12) Syrian Center for Policy Research(2016), p. 14.
13) FAO(2018), p. 6.
14) World Bank(2017), p. 56.
15) FAOSTAT; FAO(2018), p. 16-17.
16) FAO and WFP(2019), p. 23.

■ 석유 및 가스 산업은 내전 이전까지 시리아의 수출과 재정수입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내전의 영향 및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제재로 크게 위축됨.

- 시리아 원유 생산은 2010년 일일 38만 3,300배럴에서 2017년에 14,000배럴 수준으로 급감함(그림 4 참고).
  - ○ 2010년 원유 생산 중 일일 약 15만 배럴이 수출되었으며 수출액은 55억 달러에 달함.[17)]
  - ○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석유 부문 수익은 시리아 재정수입의 약 20%를 차지함.
- 천연가스는 주요 가스전 중 일부가 정부 통제 지역에 위치하여 석유 부문에 비해 피해가 비교적 제한적이었으나 2014년 ISIL의 가스 생산 시설 공격이 시작되면서 생산 규모가 감소함.
  - ○ 천연가스 생산은 2010년 84억 입방미터로 전년대비 38% 증가한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여 2017년에 31억 입방미터를 기록함.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011년 시리아 정부의 반정부 시위의 폭력적 진압에 대응하여 시리아산 석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시행함.

**그림 3. 곡물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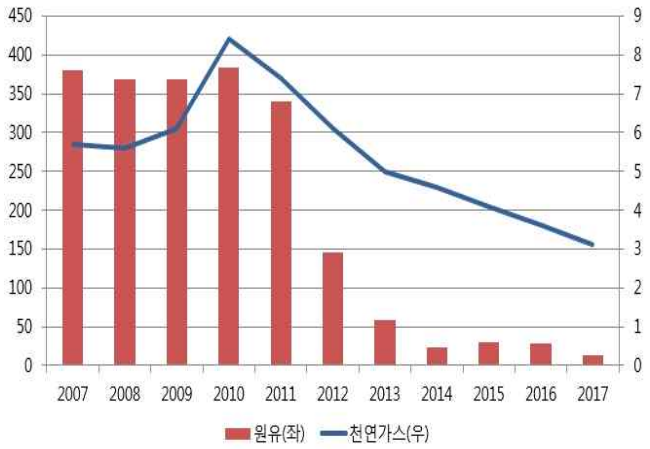
(단위: 천 톤)




자료: FAOSTAT.

**그림 4.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추이**

(단위: 천 배럴/일(좌), 십억 입방미터(우))




자료: EIA; BP(2018), p. 28.

# 3. 시리아 내전의 경제·사회적 영향

## 가. 난민 유입

■ 2011년에 분쟁이 시작된 이후 시리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내실향민(IDP), 국외 난민 신분이 되거나 다른 국가로 망명 및 이주함.[18)]

17) Butter(2015), p. 15.

-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시리아 국내실향민 수는 620만 명에 달하였으며 주변국을 비롯해 유럽으로 이주한 시리아 인구도 6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됨.[19)]
  - ○ 2019년 2월 기준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및 기타 북아프리카 국가에 이주한 것으로 등록된 시리아 난민 수는 약 568만 6,000명으로 집계됨(그림 5 참고).
  - ○ 주변국 중 터키 내 난민 수가 364만 명 이상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레바논이 95만 명, 요르단이 67만 명 순을 보이는 가운데 레바논과 요르단 내 등록되지 않은 실제 난민 수는 각각 150만 명, 1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그림 6 참고).[20)]
  - ○ 유럽으로 이주한 시리아 인구는 약 100만 명으로 이 중 50만 명 이상이 독일로, 11만 명 이상이 스웨덴으로, 약 5만 명이 오스트리아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됨.[21)]

- 시리아 내 안보 상황이 이전보다 안정화되면서 본거지로 귀환하는 시리아 인구도 증가하였는데, 국내실향민이 귀환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함.
  - ○ 2017년 11월까지 국내실향민 72만 1,000명이 본거지로 귀환하였으며 이는 자발적으로 귀환한 인구의 약 90%에 해당함.[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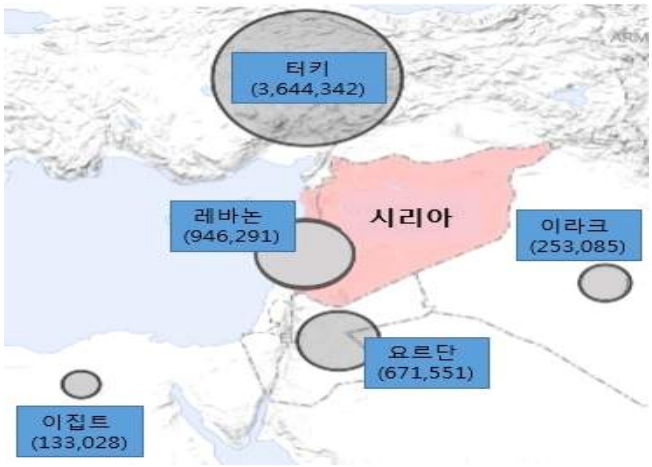
**그림 5. 주변국 내 시리아 난민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명)

주: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및 기타 북아프리카 국가 내 등록된 난민 규모 추이임.
자료: UNHCR.

**그림 6. 주변국 내 시리아 난민 현황**

(단위: 명)




주: 2019년 2월 기준 등록된 난민 수임.
자료: UNHCR.

■ 2014년 이후 유럽 내 망명 신청자 중 시리아 국적자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난민을 비롯한 대규모 인구 유입과 관련하여 유럽 국가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

-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내 망명 신청자 수는 2015년에 139만 명을 넘어서며 이례적으로 증가한 이후

18) Yassin(2018), p. 14.
19) Connor(2018. 1. 29), "Most displaced Syrians are in the Middle East, and about a million are in Europe," Pew Research Center.
20) Karasapan and Shah(2018. 10. 23), "Syrian refugees and the schooling challenge," Brookings.
21) Connor(2018. 1. 29), "Most displaced Syrians are in the Middle East, and about a million are in Europe," Pew Research Center.
22) Yassin(2018), p. 18.

2016년에도 129만 3천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7년에 크게 감소함(그림 7 참고).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리아는 유럽 망명 신청자 국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의 망명 신청자 수 급증을 야기함(그림 8 참고).

○ 유럽 내 망명 신청자 중 시리아 국적자 수는 2015년에 38만 4,000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체 망명 신청자의 27.5%를 차지함.

○ 2016년 터키는 EU와 자국을 통해 그리스로 건너가는 이민자 중 망명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이민자들과 그리스 내 시리아 난민을 자국으로 송환하는 데 합의함.

- 유럽 국가간 난민 유입 대응, 난민 수용국 지원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난민 문제가 심화되면서 EU 통합에 타격을 줌.

○ 지리적 여건상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난민이 처음으로 도착하는 국가들의 경제·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북부 유럽국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난민이 유입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동부 유럽국가들은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있음.

○ 이민자 및 테러 문제가 유럽 내 선거에서 중점 사안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극우·포퓰리즘 정당의 영향이 확대되는 등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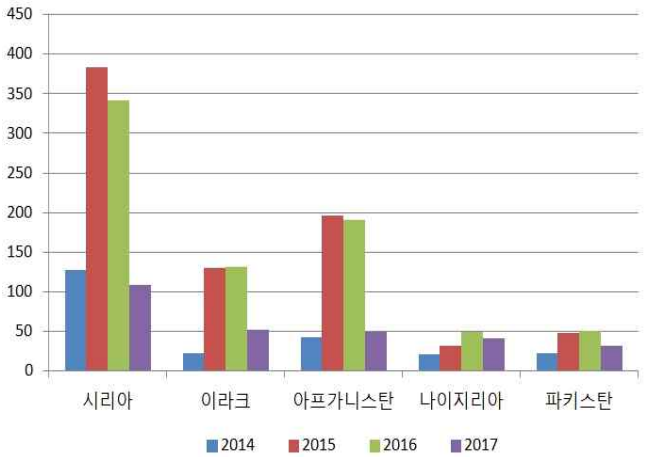
**그림 7. 유럽 내 망명 신청자 수 추이**

(단위: 천 명(좌), %(우))

자료: Migration Policy Institute.

**그림 8. 유럽 내 망명 신청자 국적별 추이**

(단위: 천 명)




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적별 망명 신청자 수 기준 상위 5개국임.
자료: Migration Policy Institute.

## 나. 주변국 경제 악화

■ 시리아 내전을 비롯해 예멘, 리비아 등의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동 지역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시리아, 예멘, 리비아, 이라크 등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크게 하락하거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보임(그림 9 참고).

○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이슬람 순니 국가들의 예멘 내전 참전이 시작된 2015년에 예멘 경제성장률은 -16.7%를 기록

한 이후 2018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 석유 부문 의존도가 높은 리비아는 경제 변동성이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분쟁이 격화된 2011년과 2014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66.7%, -53.0%를 기록함.

-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 경제성장률은 2016년을 제외하고 2013년부터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분쟁으로 인해 필수재 및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서 물가상승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10 참고).[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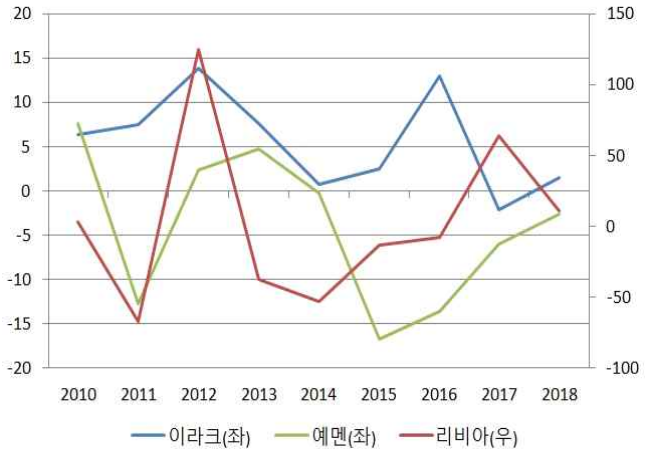
○ MENA 지역 경제성장률은 2017년 1.8%에 그친 이후 2018년에 2.0%로 소폭 상승하긴 하였으나 이는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인 3.7%에 못 미치는 수치임.

○ 2018년 예멘과 리비아 물가상승률은 각각 28.1%, 41.8%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며, MENA 지역 물가상승률은 2016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8년에 11.8%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지역 내 분쟁은 인접국에도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 가운데 시리아 내전은 특히 레바논과 요르단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그림 9. MENA 지역 내 주요 분쟁국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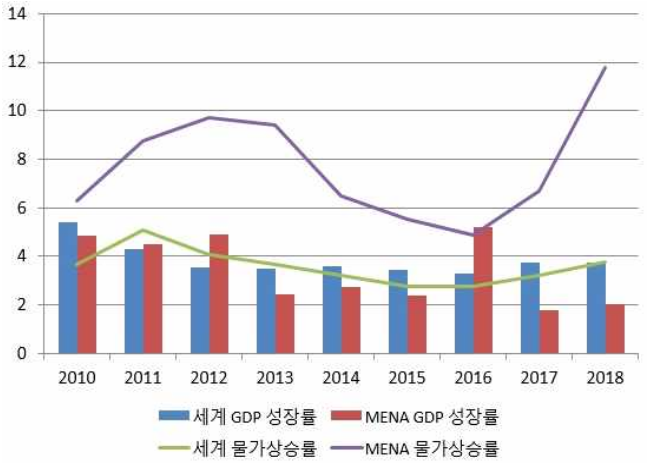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그림 10. MENA 지역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레바논 경제성장률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9% 수준을 보였으나 2011년 0.9%로 하락한 이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대를 유지하고 있음(표 2 참고).

- 레바논 인구는 2010년 433만 7,000명에서 2017년 608만 2,0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시리아 난민의 비중이 약 25%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됨.[24]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리아 난민 사태로 인해 레바논에 11억 달러의 추가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됨.[25]

23) IMF(2016), p. 9.
24) World Bank Open Data.
25) Cornish(2018. 10. 22), "Syrian war aggravates weaknesses in Lebanese economy," Financial Times.

○ 2015년까지 약 75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17만 명의 레바논인이 빈곤 상태에 빠지고 실업률은 약 2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26)]

- 시리아 내전으로 교역 규모가 감소하고 주요 산업인 관광업이 타격을 받은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못함.

○ 레바논 관광업 GDP는 2012년 94억 8,900만 달러에서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93억 100만 달러, 87억 7,300만 달러로 하락한 이후 2015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임.[27)]

○ 레바논은 선거법 개정, 시리아 내전 등의 영향으로 2018년 5월 9년만에 총선을 치른 이후 약 9개월 동안 정부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짐.

**표 2. 레바논 주요경제지표**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경제성장률(%) | 0.9 | 2.8 | 2.7 | 2.0 | 0.2 | 1.7 | 1.5 | 1.0 |
| 물가상승률(%) | 5.0 | 6.6 | 4.8 | 1.9 | -3.7 | -0.8 | 4.5 | 6.5 |
| 경상수지(GDP 대비 %) | -15.2 | -23.6 | -26.1 | -26.0 | -18.3 | -21.7 | -22.8 | -25.6 |
| 재정수지(GDP 대비 %) | -5.9 | -8.4 | -8.9 | -6.2 | -7.5 | -8.8 | -6.0 | -9.7 |
| 정부부채(GDP 대비 %) | 133.9 | 131.0 | 136.6 | 137.2 | 140.9 | 145.5 | 146.8 | 150.0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요르단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6.5%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역내 불안 속에 성장이 둔화되면서 2015년부터 성장률이 2%대에 그침(표 3 참고).

- 요르단 정부가 급격한 난민 유입으로 증가한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면서 공공부채가 확대됨.

○ GDP 대비 정부부채는 2008년 60.2%를 기록한 이후 계속된 증가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96.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9월 아이만 사파디(Ayman Safadi) 요르단 외무장관은 요르단이 약 13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1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밝힘.[28)]

- 또한 시리아 내 분쟁 격화로 통상로를 변경하면서 교역 비용이 증가하였고, 시리아와의 교역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 식품 수입의 70%가 이루어지는 시리아와의 주요 교역로인 자베르(Jaber) 국경이 폐쇄되면서 요르단은 식량 안보 문제에 노출되었으며 시리아와의 농산물 교역 규모도 크게 감소함.[29)]

26) ILO, Countries, Arab States, Areas of work, Syrian Refugee Crisis, In Lebanon.
27) Bankmed(2017), p. 3.
28) Trew(2018. 9. 6), "'Huge burdens' face cash-strapped Jordan struggling with refugee crisis," Independent.
29) Alshoubaki and Harris(2018), p. 169; 자베르 국경은 2018년 10월에 재개방됨.

**표 3. 요르단 주요경제지표**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경제성장률(%) | 2.6 | 2.7 | 2.8 | 3.1 | 2.4 | 2.0 | 2.0 | 2.3 |
| 물가상승률(%) | 4.2 | 4.5 | 4.8 | 2.9 | -0.9 | -0.8 | 3.3 | 4.5 |
| 경상수지(GDP 대비 %) | -10.3 | -15.2 | -10.4 | -7.3 | -9.1 | -9.5 | -10.6 | -9.6 |
| 재정수지(GDP 대비 %) | -6.8 | -8.9 | -11.5 | -10.0 | -4.1 | -3.4 | -2.6 | -2.2 |
| 정부부채(GDP 대비 %) | 70.7 | 80.7 | 86.7 | 89.0 | 93.4 | 95.1 | 95.9 | 96.0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다. 사회 불안 확대

■ 시리아 내 혼란 상황은 이라크에 근거지를 둔 무장단체 이라크 이슬람국가(ISI)가 시리아에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시리아에서 ISIL 수립으로 이어짐.

- ISI는 2011년에 시리아 반군 세력으로 합류한 이후 2013년에 이름을 ISIL로 변경하고 시리아에서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확대함.
  - ○ 2014년에는 칼리프제의 이슬람국가(IS) 수립을 선포하였으며, IS는 한때 시리아 서부부터 이라크 동부에 걸쳐 88,000㎢ 면적에 달하는 지역의 약 800만~1,000만 인구를 통제함.[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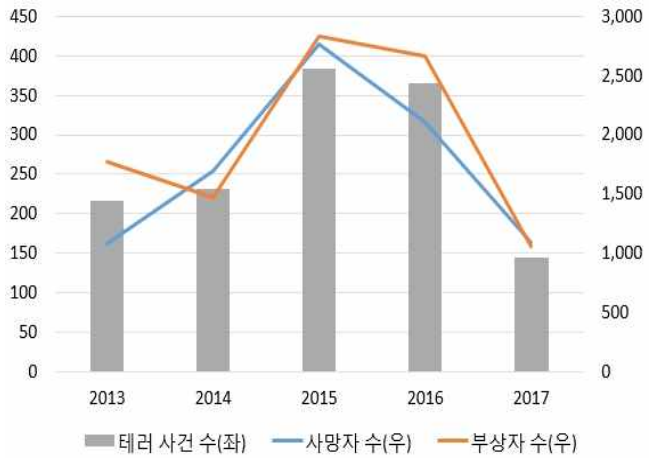
- ISIL은 세금 징수, 갈취, 천연자원 채굴, 유물 판매,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 산업에 직접적 관여 등을 통해 수입을 얻음.[31]
  - ○ 석유 부문은 ISIL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였으나 석유 생산 지역에 대한 통제를 잃으면서 ISIL의 연간 수입은 2014년 19억 달러에서 2016년 8억 7,000만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32]
  - ○ ISIL은 석유, 가스, 광물 등을 담당하는 부처를 설립하기도 하였는데,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규모가 최고 연 5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음.

- ISIL의 확산은 시리아 내 안보 리스크를 증대시켰으며 ISIL의 테러와 이에 대응한 시리아 정부군 및 미군 주도 연합군의 공습이 이어지며 인명피해가 급증함.
  - ○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시리아 내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는 9,574명으로 집계되며 이 중 8,735명의 사망자가 2013~17년 4년 동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11 참고).
  - ○ 국제 군사작전 감시단체인 에어워스(Airwars)에 따르면 2017년 시리아 내 연합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민간인 수는 최소 2,989명으로 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망자 수는 4,893명으로 추정됨(그림 12 참고).[33]

30) BBC(2019. 2. 7), "After the caliphate: Has IS been defeated?"; BBC(2018. 3. 28), "Islamic State and the crisis in Iraq and Syria in maps."
31) Robinson *et al.*(2017), p. 10.
32) Al Jazeera(2017. 6. 20), "The rise and fall of ISIL explained."
33) 2018년 12월 미군은 지난 4년간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 수가 1,139명이라고 밝힘(Samuels(2018. 12. 30), "US acknowledges additional civilian deaths in fight against ISIS," The Hill 참고).

**그림 11. 시리아 내 테러 피해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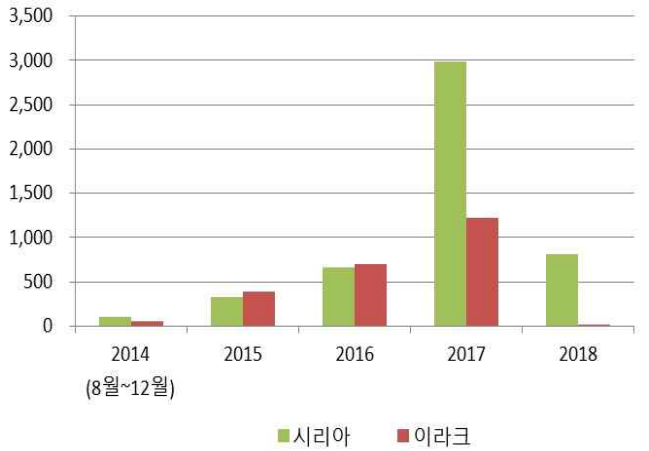
(단위: 건(좌), 명(우))




자료: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2014, 2015, 2016, 2017, 2018), Global Terrorism Index.

**그림 12. 연합군 공습에 의한 민간인 피해규모 추이**

(단위: 명)




주: 사망한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 추정치임.
자료: Airwars.

■ 한편 시리아 난민이 대규모로 유입된 주변국에서 시리아 난민과 지역 사회간 마찰이 빚어지며 내전의 영향으로 취약해진 안보 상황에 불안정성이 가중됨.

- 제한된 자원과 공공서비스를 두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긴장이 높아졌으며 수자원 및 전력 부족, 주거비용 상승, 토지 황폐화 및 환경오염 문제 등이 악화됨.
  - ○ 인구 증가로 인해 요르단 내 1인당 연간 재생가능 수자원량은 2005년 기준 161입방미터에서 2014년 123입방미터로 감소하였으며, 레바논도 같은 기간 1,259입방미터에서 770입방미터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34]
- 또한 시리아 난민 유입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임금이 하락하는 등 노동조건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 ○ 요르단 실업률은 2014년 11.9%에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3.1%, 15.3%로 상승한 이후 2017년에 18.3%를 기록하는 등 계속된 상승세를 보임.[35]
  - ○ 시리아 난민은 임금이 낮고 표준 노동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일자리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요르단 및 레바논 현지 노동자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지적됨.[36]
- 시리아와 인종과 언어가 다른 터키에 시리아 난민이 유입되면서 인구 구성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초래함.[37]
  - ○ 대부분 이슬람 순니 아랍인인 시리아 난민의 유입으로 터키 국경 도시에서 잠재적으로 분쟁 요소가 될 수 있는 종족(터키-아랍-쿠르드) 및 종교(순니-알레비-알라위) 다양성이 높아짐.

34) FAO, AQUASTAT.
35)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36) ILO(2014), p. 37; Alshoubaki and Harris(2018), p. 171.
37) Donelli(2018), pp. 5-6.

#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시리아는 정부군이 영토 대부분을 수복하고 ISIL 세력이 크게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안정화에 이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철군 계획 일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리아 북동부를 둘러싼 안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 YPG를 시리아와 터키 국경 지역에서 몰아내려 하는 터키는 미국의 철군 발표를 환영하면서 안전지대 구축 및 관리를 터키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미국의 철군으로 터키, ISIL 등의 공격 위험에 노출된 YPG는 아사드 정부와의 협상을 추진하며 안전보장 및 자치지역 확보를 모색함.
  - ○ 미국은 철군 발표 이후 터키에 쿠르드 세력을 공격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YPG의 정치 기구인 민주동맹당(PYD)에 아사드 대통령과의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이 PYD가 수용할 수 있는 제안을 내놓지 않는 한 쿠르드 세력은 아사드 정부와 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38]
- 러시아는 미국이 일부 병력을 남기고 다국적 감시군 배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철군 계획을 수정한 이후 러시아 병력이 안전지대에 주둔할 수 있음을 시사함.
  - ○ 러시아는 쿠르드 거점인 시리아 북동부를 아사드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 한편 ISIL의 마지막 점령지인 바구즈(Baghuz)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며 ISIL 격퇴가 가시화됨.
  - ○ 그러나 마지막 점령지 탈환 이후에도 전투 과정에서 도주하거나 다른 국가로 이주한 세력이 재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 ISIL에 가담했다가 포로로 잡힌 외국인 전투원의 신병 처리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들이 유럽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우려가 제기됨.[39]

■ 시리아 내 안정화가 지연되면서 난민 문제도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UNHCR은 2019년에 25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귀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난민 귀환을 가로막는 요소들의 해소 여부에 따라 귀환자 수가 변동될 것이라고 밝힘.[40]
  - ○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재산 및 주택 등에 대한 문서 증빙이며, 난민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농업 및 민간인 지역의 지뢰, 폭발물 해체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됨.
- 또한 아사드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면서 반군 관련 세력의 귀환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 시리아 정부는 2018년 국가 재건을 위해 국민의 사유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신규 재산법(Law 10)을 통과시켰으나 반정부 세력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됨.
  - ○ 해당 법안은 재산 소유권자가 재건 지역 지정 이후 30일 이내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사유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후 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시리아 정부는 사유재산 등록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

38) Robinson(2019. 2. 18), "Syria Player's Next Steps Hinge on US Withdrawal Plans," Oxford Analytica.
39) Al Jazeera(2019. 2. 19), "Syria: SDF calls for help with 'time bomb' ISIL fighters."
40) Al Jazeera(2018. 12. 12), "UN says 250,000 refugees could return to Syria in 2019."

○ 서류를 통한 소유권 증명이 어렵고 법이 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은 실질적으로 시리아 피난민이 자산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함.

■ 아사드 정부는 대외적으로 시리아의 정상화를 인식시키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12월 오마르 알바시르(Omar al-Bashir) 수단 대통령은 내전이 시작된 이후 아랍연맹 국가 정상 중 처음으로 시리아를 방문함.

○ 알바시르 대통령의 방문은 수단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신해 시리아에 보인 우호적 제스처로 해석됨.[41)]

- 2019년 2월 아사드 대통령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이란을 방문하여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 최고지도자와 카심 술래이마니(Qassem Soleimani)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등과 회동함.

○ 아사드 대통령은 이를 통해 시리아 분쟁이 마무리되어 국가가 정상화되고 있음을 알리고 시리아 재건에서 이란의 지원을 얻으려 한 것으로 평가됨.

-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걸프 국가들은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추진하며 반군을 지원하였으나 중동 지역 내 이란의 영향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리아와 제한적으로 관계 회복을 추진할 수 있음.

○ 2018년 12월 UAE는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대사관을 재설치하였으며 UAE에 이어 바레인도 시리아 내 자국 대사관 업무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함.

○ 아랍 국가들은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정지되었던 아랍연맹 회원국 자격도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시리아 재건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건 추진을 위해서는 국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임.

- UN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에 따르면 시리아 재건에 3,88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은행은 시리아 내 파괴된 도시 복구에만 약 2,0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함.[42)]

- 내전에서 아사드 정부를 지원한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만으로 재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리아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국가는 아랍 국가, 터키, 중국 등으로 제한될 것임.

○ 미국이 시리아 재건과 관련하여 걸프국들이 이를 지원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이후 2018년 8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리아 북동부 안정화를 위해 1억 달러 지원을 약속함.

○ 아랍 국가들은 시리아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사드 정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재건의 편익이 이란에게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 지원 규모는 기대보다 작아질 수 있음.

○ 중국은 2017년에 시리아 재건을 위한 2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이후 2018년 개최된 중국-아랍국가 협력포럼에서 시리아를 포함한 아랍 지역에 추가적으로 230억 달러 원조 및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함.[43)]

- 미국과 유럽은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한 채 아사드 정권 하에서 재건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41) McKernan and Chulov(2018. 12. 26), “Arab League set to readmit Syria eight years after expulsion," The Guardian.
42) Özkizilcik(2018. 9. 25), “Sharing the costs of rebuilding Syria,” The New Arab; Makki(2018. 11. 6), “Syria's war economy exacerbates divide between rich and poor,” Middle East Institute.
43) Burton(2018. 7. 28), “China and the Reconstruction of Syria,” The Diplomat.

○ 미국은 2018년에 ISIL 퇴치 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기금 지원도 중단하였으며 UN이 인정하는 정치적 변화를 이루지 않는 한 재건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유럽도 기본적으로 시리아 내 정치적 변화가 있기 전까지 재건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난민 송환과 관련한 지원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은 국제적인 인도주의 위기에 대응해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동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한국은 2019년 3월 개최된 '시리아 및 주변 지역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제3차 브뤼셀 회의'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시리아 및 주변국에 1,2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힘.[44]

○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은 시리아와 레바논, 요르단, 터키 등 주변국에 6,3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함.[45]

- 한편 한국은 2018년에 UAE와 제3국 공동 진출방안을 모색하며 시리아 재건 프로젝트 협력방안을 논의함.[46]

- 또한 시리아를 비롯해 인접국인 이라크의 재건 수요도 상당함에 따라 이라크와 연계한 재건사업 진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2018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분쟁으로 인한 이라크 피해 규모는 457억 달러에 이르고 재건 수요는 88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47]

- 그러나 시리아 내 안보 불안이 지속되고 경제 및 사회 안정이 단기간 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KIEP

44) 외교부(2019. 3. 15), 「정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도적 위기인 시리아 사태에 올해 총 1,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 발표」, 정책브리핑.
45) 외교부(2018. 4. 26), 「정부, 「제2차 시리아 및 주변국 지원 관련 브뤼셀 회의」에서 1,400만불 규모 인도적 지원 계획 발표」, 정책브리핑; 외교부(2017. 4. 6), 「정부, 시리아 및 주변국에 14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정책브리핑.
46) 김현희(2018. 4. 11), 「韓·UAE, 시리아 재건 손잡는다」, 『파이낸셜뉴스』.
47) World Bank(2018), p. 3.

# 참고문헌

## [국문자료]

김현희. 2018. 4. 11.「韓·UAE, 시리아 재건 손잡는다」.『파이낸셜뉴스』.

외교부. 2017. 4. 6.「정부, 시리아 및 주변국에 1400만달러 인도적 지원」. 정책브리핑.

_____. 2018. 4. 26.「정부,「제2차 시리아 및 주변국 지원 관련 브뤼셀 회의」에서 1,400만불 규모 인도적 지원 계획 발표」. 정책브리핑.

_____. 2019. 3. 15.「정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도적 위기인 시리아 사태에 올해 총 1,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 발표」. 정책브리핑.

## [영문자료]

Al Jazeera. 2017. 6. 20. “The rise and fall of ISIL explained.”

_____. 2018. 12. 12. “UN says 250,000 refugees could return to Syria in 2019.”

_____. 2019. 2. 19. “Syria: SDF calls for help with 'time bomb' ISIL fighters.”

Alshoubaki, Wa’ed and Michael Harris. 2018. “The impact of Syrian refugees on Jordan: A framework for analysi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Bankmed. 2017. *Analysis of Lebanon's Travel and Tourism Sector*.

BBC. 2015. 12. 23. “Syria conflict: Russian air strikes 'killed 200 civilians'.”

_____. 2018. 3. 28. “Islamic State and the crisis in Iraq and Syria in maps.”

_____. 2019. 2. 25. “Why is there a war in Syria?”

_____. 2019. 2. 7. “After the caliphate: Has IS been defeated?”

BP. 2018.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8*.

Burton, Guy. 2018. 7. 28. “China and the Reconstruction of Syria.” The Diplomat.

Butter, David. 2015. *Syria's Economy: Picking up the Pieces*.

Carey, Glen, Donna Abu-Nasr, Selcan Hacaoglu, Henry Meyer. 2019. 1. 15. “Who’s Still Fighting Who in Syria’s Eight-Year War.” Bloomberg.

Connor, Phillip. 2018. 1. 29. “Most displaced Syrians are in the Middle East, and about a million are in Europe.” Pew Research Center.

Cornish, Chloe. 2018. 10. 22. “Syrian war aggravates weaknesses in Lebanese economy.” Financial Times.

Diamond, Jeremy and Ryan Browne. 2019. 2. 23. “Trump agrees to keep about 400 US troops in Syria, official says.” CNN.

Donelli, Federico. 2018. *Syrian Refugees in Turkey: A Security Perspective*.

FAO. 2018. *Special Report -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Syrian Arab Republic*.

FAO and WFP. 2019. *Monitoring Food Security in Countries with Conflict Situations*. Issue No. 5.

ILO. 2014. *Assessment of the Impact of Syrian Refugees in Lebanon and their Employment Profile*.

IMF. 2016. *The Economic Impact of Conflicts and the Refugee Crisis in MENA*.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2014, 2015, 2016, 2017, 2018. *Global Terrorism Index*.

Karasapan, Omer and Sajjad Shah. 2018. 10. 23. "Syrian refugees and the schooling challenge." Brookings.

Makki, Danny. 2018. 11. 6. "Syria's war economy exacerbates divide between rich and poor." Middle East Institute.

McKernan, Bethan and Martin Chulov. 2018. 12. 26. "Arab League set to readmit Syria eight years after expulsion." The Guardian.

Robinson, Eric, Daniel Egel, Patrick B. Johnston, Sean Mann, Alexander D. Rothenberg, David Stebbins. 2017. When the Islamic State Comes to Town,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2014. 2015. 2016. 2017. 2018. Global Terrorism Index.

Robinson, Richard. 2019. 2. 18. "Syria Player's Next Steps Hinge on US Withdrawal Plans." Oxford Analytica.

Samuels, Brett. 2018. 12. 30. "US acknowledges additional civilian deaths in fight against ISIS." The Hill.

Sullivan, Kate. 2018. 12. 20. "Graham: Trump's Syria withdrawal a 'stain on the honor of the United States'." CNN.

Syrian Center for Policy Research. 2015. *Alienation and Violence: Impact of Syria Crisis Report 2014*.

_____. 2016. *Confronting Fragmentation! Impact of Syrian Crisis Report*.

Trew, Bel. 2018. 9. 6. "'Huge burdens' face cash-strapped Jordan struggling with refugee crisis." Independent.

World Bank. 2017. *The Toll of War*.

_____. 2018. *Iraq Economic Monitor: From War to Reconstruction and Economy Recovery*.

Yassin, Nasser. 2018. *101 Facts & Figures on the Syrian Refugee Crisis*.

Özkizilcik, Ömer. 2018. 9. 25. "Sharing the costs of rebuilding Syria." The New Arab.

**[웹사이트]**

2019 Syrian Arab Republic Humanitarian Needs Overview. Key Figures. Humanitarian Needs. https:

//hno-syria.org/#key-figures.

Airwars. https://airwars.org/report/airwars-annual-assessment-2018/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http://www.cbssyr.sy/index-EN.htm

EIA. https://www.eia.gov/beta/international/

FAO. AQUASTAT. http://www.fao.org/nr/water/aquastat/main/index.stm

FAOSTAT. http://www.fao.org/faostat/en/#country/212

ILO. Countries. Arab States. Areas of work, Syrian Refugee Crisis. In Lebanon. https://www.ilo.org/beirut/areasofwork/syrian-refugee-crisis/lebanon/lang--en/index.htm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18/02/weodata/index.aspx

Migration Policy Institute. https://www.migrationpolicy.org/programs/data-hub/charts/asylum-applications-euefta-country-2008-2017

UNdata. http://data.un.org/en/iso/sy.html

UNHCR. https://data2.unhcr.org/en/situations/syria#_ga=2.105080259.1901847911.1551724933-262858764.1550682695

World Bank Open Data.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TOTL?locations=LB